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Households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학전공
교수 채정숙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Lecturer : Kim, Yon-Hee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professor : Chae, Jung-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households. The financial status of single households were analyzed using the income and expense status, balance sheet status and selected financial ratios as components. The data of 757 single household's from the 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were utilized.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ale single households had higher income and expense status than those of females but lower holdings of other asset with the exception of liquid assets. Single elderly households had the highest holdings of both real assets and debt. 2. Usually single households were retained more short-term than long-term liquid assets. The debt burden ability in using net assets was the lowest of all assets. To accumulate capital those in single household were more likely to have savings than investment assets.

주제어(Key Words): 독신가구(single household),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재무비율(financial ratio), 저축(savings), 수입지출상태(income and expense status), 유동자산(liquid assets), 실물자산(real assets),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

Corresponding Author: Yon Hee Kim, Ye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214-1, Dae-dong, Gyeongsan, 712-749, Korea Tel: 82-53-810-2860 Fax: 82-53-810-4667 E-mail: kykyu@yumail.ac.kr

I. 서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변화 중 가장 현저한 양상은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통계청(2001)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1인 가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80년대와 비교해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현재 전체 14,312천 가구 중 15.5%에 해당하는 약 2,218천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이다. 이러한 독신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교육기간의 연장과 임금노동의 확산, 개인주의와 자유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 상승, 가족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김영화 · 이진숙 · 이옥희, 2002).

이처럼 독신의 수가 증가한 것 이상으로 독신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제기된 것도 최근의 변화중의 하나이다. 96년 통계청(1998)조사에 의하면 20·30대 독신가구의 연간 소비액은 전체평균 6백 68만원에 비해 7백 만원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자신을 위한 투자에 아낌없는 소비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솔로족을 겨냥한 산업들은 호황을 누리며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독신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주도해 가는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독신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국민전체의 경제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독신 가족이 독신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경제적 어려움을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첫째, 미혼독신자인 경우 현재의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문제, 구직에 대한 어려움,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 대한 불만 둘째, 사별독신으로 전업주부의 생활에서 혼자 됨으로써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스스로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 셋째, 주거마련에 대한 어려움 넷째, 노인 독신가족인 경우 각종 만성 질병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는데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신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어려움에서부터 생계비의 부족, 주거마련

비용, 주거유지 비용에 이르기까지 독신 생활을 힘들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박정운, 김진희, 2002).

이처럼 독신생활의 어려움은 가중시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사회나 제도적인 장치를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독신가구의 삶도 개인이 선호하는 하나의 가족 생활양식이라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독신가구는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독신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분석·평가하는 일은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유도하여 재정적 복지를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재정상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일반 및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지표는 소득과 지출의 유량과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의 저량측정과 같이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으로 많은 선행연구(문숙재 · 김순미 · 김연정, 1996; 김순미, 1998; 양세정 · 성영애, 2001)들이 진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재무비율을 이용한 국외분석(Griffith, 1985; Mason & Griffith, 1988; Lytton, Garman & Porter, 1991; Prather, 1990; Prather & Hanna, 1987; DeVaney, 1993)과 국내에서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무비율 분석(양정선, 1997; 황덕순 · 김숙향, 1999; 김순미 · 홍성희, 2000; 배미경, 200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무비율 분석(김순미, 1998; 김연정, 1998a; 최윤지 · 최현자, 1998), 취업 및 비취업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정상태 분석(정순희 · 김현정, 2002)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독신가구의 재정상태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유량 및 저량 분석을 이용한 측정방법(심영, 2002)과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 및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성지미·이윤정, 2001)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재무를 분석과 함께 시도한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인으로 형성된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단순 절대소득액이나 지출액의 측정뿐 아니라 재무비율을 사용한 소비지출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자산축적비율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독신가구의 재정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서 재정문제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노후를 대비한 재무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지원을 밝힘으로써 독신가구를 위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경제적 복지서비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계재정상태 측정

전형적인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와 소득지출 상태표를 이용하였다(Garman & Fargue, 1994; Winger & Frasca, 1993). 대차대조표의 3가지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순자산이다. 가계의 재정복지를 파악하는데 순자산지량, 총자산량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Prather, 1990), 나아가 가계의 재정상태를 한층 더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소비자수요, 소비 그리고 저축, 가계재정 관리, 투자, 자산 및 부채를 분석하였다(Hefferan, 1982; Porter & Garman, 1992). 재정복지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변인, 가계재정상태의 주관적인 평가, 시기에 걸친 상황의 변화와 같은 변인들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재정복지의 평가는 주관적, 객관적 재정상태 측정뿐만 아니라 특정한 비교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Porter & Garman, 1992). 여기서 객관적 변인으로

는 소득, 생활주기단계, 자녀 수, 재무관리 행동이 포함되고 있다. 전시기에 걸쳐 가계재무 상태의 변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무비율을 이용함으로써 재정복지의 측정에 접근할 수 있었다.

재무비율을 가계에 도입하게 된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단순히 소득과 지출 등 한 측면만으로 측정하는 것 보다 두 가지 이상의 재정적 항목을 사용한 재무비율을 도입하는 것은 가계재정 상태의 정밀성과 비교 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재정상태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측정치를 기초로 한 상대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상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용이하다고 하였다(Griffith & Widdows, 1985; Prather, 1990 재인용). 재정상태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을 위한 재무비율 분석은 가계로 하여금 재정 목표에 도달하도록 적절한 저축과 투자 유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준다. 뿐만 아니라 재무비율 분석은 특정 가계의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 목적에도 적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재정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목적에도 유용하다(DeVaney, 1993).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분석이 진행되어왔다. 즉 생활주기에 걸쳐 가계의 재정측정을 재무비율 분석으로 이용한 연구(Griffith, 1985; Lytton, Garman & Poter, 1991; Mason & Griffith, 1988; Prather, 1987)와 16개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순자산을 분석한 연구(Griffith, 1985),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비, 투자,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분석이 소비자의 재정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제시한 연구(Mason & Griffith, 1988)가 있다. 그리고 Lytton et al(1991)은 가계재정 상태 분석을 3가지 영역 즉 소득과 지출의 관계, 부채부담, 재무목표 진행의 측면에서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Garman & Fargue(1994)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 총부채 대 총자산, 연간 부채상환액 대 총소득, 연간 부채상환액 대 연간 가처분소득 등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Griffith(1985)와 Parther(1987)는 순자산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총자산에 대한 변화로서

측정하고 있다. Iwuagwu(1989)는 재정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월총소득을 이용한 개인별 부채비율을 측정하고자 제안하였다. Lytton et al(1991)이 이용한 재무비율을 선택된 변인들을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이용한 부채 및 유동성비율, 저축비율을 측정하여 제시하며, 그 외 소비지출, 월평균 총주거지출, 총주거 자산, 총주거관련 부채, 투자자산 변인을 확대하여 재정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DeVaney(1993)는 Lytton et al(1991)이 사용한 재무비율을 기초로 하여 주거비 지출비율을 측정하고자 총소득에서 연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여 측정하고 있다

양정선(1997)은 외국에서 사용되는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이용하여 유동자산 보유액의 적절성, 초과지출 여부, 유동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 지불능력, 유동성을 측정한 반면 우리 나라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 부채청산에 소요되는 기간, 주관적인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및 지출의 관계, 월간 주관적 최저생계비율을 측정하였다. 최윤지(1998)는 선행연구들에서 그 유용성이 입증된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소비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비율로 분류하여 여러 하위비율들을 통해 측정하였다.

2. 재무비율을 적용한 선행연구 고찰

대표적인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다양한 재무비율의 개념과 그 준거기준(guideline)을 제시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이다.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Lytton, Garman & Poter(1991)가 제시한 평균순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으로 이는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하였으며, 월평균순소비지출:필수지출+임의지출(신용과 부채상환포함, 저축과 투자제외)을 의미하며(준거기준: 1.0미만), 한편 최윤지(1998)는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 현재의 재정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월평균총주거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을 살펴보

면 Lytton, Garman & Poter(1991)는 월평균총주거지출/ 월평균가처분소득으로 총주거지출:월세,주택담보금상환 관련세금, 사용료, 유지비, 수리비, 주택보험료로 구성되었다(준거기준: 0.30-0.40).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최윤지(1998)는 평균 지출의 대리변수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여 측정한 유동성 비율을 의미한다(준거기준:0.25초과). DeVaney의 재무비율은 Mason & Griffith(1988)와 Winger & Frasca (1993)의 유동자산/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는데 즉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월별 지출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월별 지출액 대신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적절한 기준으로 3-4를 제시하였는데 즉 유동자산이 3-4 개월분의 가처분소득과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을 살펴보면 Griffith(1985)의 유동자산/월지출액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신용카드사용가능성, 가족원들의 직업안정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준거기준: 2-6개월이상). 한편 유동 및 금융자산/월평균지출은 유동자산/월지출액 비율 보다 자산의 범위 확대시킨 지표이다(준거기준: 6.0이상). Griffith(1985)은 유동자산/월지출액, 유동 및 재무자산/월지출액과 Parther(1987)은 유동자산/월지출액, Iwuagwu(1989)은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가계의 유동성 측정, 자가고용, 불규칙고용자일경우 더 많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준거기준: 2-6개월분). 양정선(1996)은 금융자산/월지출액은 유사시에 대비하는 유동자산 보유액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최윤지(1998)는 유동자산/월지출액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적정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을 의미한다(준거기준: 3.0초과).

유동자산/ 순자산을 살펴보면 Griffith(1985, 재인용)은 유동자산/순자산은 총체적 재정목표 평가시 필요한 지표이다.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중 평가시 이용되며 유동자산은 수익률이 낮은 방식으로 보유되기에 이 지표가 높다면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유동 및 기타

금융자산/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총금융자산의 평가로 저축요소에 초점을 둔 지표이다. 저축 목표는 다양하고 객관적 표준으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정선(1996)은 금융자산/순자산으로 자산의 유동성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최윤지(1998)는 유동자산/순자산으로 총순자산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중을 평가할 때 이용하며 구체적 재정목표 평가 시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유동자산/총부채를 살펴보면 최윤지(1998)는 유동자산/총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으며(준거기준: 0.1초과), Iwuagwu(1989)은 부채비율에서 유동자산/총부채로 파악하였다. Griffith(1985), Parther(1987)은 부채비율로 유동자산/총부채, 유동 및 재무자산/부채, 유동자산/비담보부채, 유동자산/년간 부채지불액, 유동 및 재무자산/년간 부채지불액으로 측정하였으며, Griffith(1985, 재인용)은 유동자산/총부채는 유동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유동자산내에서 부채한계와 신규 부채 수용 여부결정은 0.1이상을 의미한다.

총부채/순자산을 살펴보면 Griffith(1985), Parther(1987)는 총부채/순자산으로 부채/자산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Griffith(1985, 재인용)은 총부채/순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가치에 대한 총부채의 관계로 가계의 부채지위를 평가하였다(준거기준:1.0이하). 양정선(1996)은 총부채/순자산은 가계의 전반적인 지불능력으로 파악하였으며, 최윤지(1998)는 총부채/순자산은 순자산의 가치에 대한 총부채의 관계로 가계의 부채지위를 평가하였다(준거기준:1.0미만).

실물자산/총부채를 살펴보면 양정선(1996)은 실물자산/총부채로 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을 파악하였으며, 최윤지(1998)는 실물자산/총부채로 실물자산으로 총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준거기준:1.0초과).

투자자산/순자산을 살펴보면 최윤지(1998)는 투자자산/순자산인 경우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며(준거기준: 0.2초과), 이때 투자자산/순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은 금융자산, 기타자산, 사업자산으로 구성되며, 이때 주택은 제

외된다. Lytton, Garman & Porter(1991)에 따르면 적어도 가계 자산의 25%는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은퇴기에 가까울수록 유동성이 증가하여야 한다(준거기준: 0.25이상). DeVaney(1993)은 투자자산/순자산인 경우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로 주택 소유와 다른 재정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낸다(준거기준: 0.20이상).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최윤지(1998)에 의하면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인 경우 가계의 저축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준거기준:0.1초과).

3. 연령별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독신의 생활양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여성개발원, 2002)고 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독신의 삶에 대해 만족수준이 낮으며, 독신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인구학적특성 중에서는 가구주의 결혼상태, 직업, 자영업 소유여부가 가계에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질 가능성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진 가계와 불충분한 은퇴자산을 가진 가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독신남성인 경우 15% 대 14%, 독신여성인 경우 16% 대 26%로 나타났다. 즉 독신 여성이 독신 남성보다 충분한 은퇴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운경, 1999).

가구유형별 및 지역별 빈곤실태를 조사한 결과(박순일, 김태완, 2000) 빈곤층의 대부분은 노령가구, 여성가구, 1인 및 2인 소규모 가구, 장애인가구 등과 같은 인구학적 취약성을 지닌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또한 무기술 및 저교육수준과 같은 근로능력에서 취약성을 지닌 가구들이었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통계청, 2002)자료에 의하면 1인 남성가구는 1인 여성가구보다 연간소득 및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의 유형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1인 남성가구는 1인 여성가구에 비해 근로소득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고, 1인 여성가구는 1인 남성가구에 비해 재산소득, 이전

소득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였다. 소비지출패턴을 살펴보면, 1인 남성가구는 식료품비, 주거·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1인 여성가구는 1인 남성가구보다 가구·가사용품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에 있어 저축 및 부채를 비교한 결과, 1인 남성가구가 1인 여성가구보다 저축 및 부채가구비율, 저축보유액이 높았으며 특히 부채보유액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대졸이상의 1인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 고졸학력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저축 및 부채를 살펴보면, 저축보유액은 60세 이상 1인 가구에서 가장 많았으나 30세 미만 1인 가구인 경우 저축보유액이 가장 적었다. 부채보유액은 40대의 1인 가구에서 가장 많았으나 30세 미만인 경우 부채보유액은 가장 적었다.

저축률은 40대 독신가구가 30대 독신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는 40대 독신가구가 30대 독신가구에 비해, 남성 독신가구가 여성 독신가구에 비해, 고졸 독신가구가 대졸 독신가구와 대학원 이상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를 지는 비율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독신가구는 주택마련비용과 카드과다사용으로 인해 부채를 지는 경향이 많았다. 30대 독신가구와 남성독신가구는 카드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산관리는 대부분이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였다. 노후경제 준비 방법은 전반적으로 은행권 이용이 보험권 이용보다 많았다(통계청, 2002).

월평균 생활비는 40대 독신가구는 30대 독신가구보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 독신가구는 남성 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정도의 생활비가 많았다. 남성 독신가구는 중간 정도의 생활비가 가장 많았다. 남성 독신가구는 중간 정도의 생활비가 가장 많았다. 고졸 독신가구는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독신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살펴본 결과 19.4%가 외식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양·오락·교제비, 의복 및 신발비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는 점도 독신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심영, 2002).

2000년 현재 전체 단독가구주 중 65세 이상의 여성노인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8%이고,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주의 85.3%를 여성노인이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성지미, 이윤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독신은 90%가 여성이며 소득원천은 주로 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소득의 88%를 지출하고 있었다. 저축과 부채는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노인가구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며, 순저축액은 48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지출, 장기적 관점에서 저량의 개념으로 파악되는 순저축액을 기준으로 본 노인가구의 불평등정도는 소득, 지출, 순저축액으로 갈수록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가구는 그 집단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다른 경제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이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 집단 중에는 노인독신가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학력 및 취업률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여성노인독신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비율로 측정된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2.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연령,

성별, 주택소유 여부, 가구주 직업 등을 채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재정 및 재무비율

본 연구에서 재정, 재무변인들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변인을 살펴보면, 유동자산(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실물자산(자가+부동산+건물+임야), 총소득(남편+부인+그 외 가족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자산소득+이전 및 기타소득), 월평균가처분소득(총소득-비소비지출(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총부채(금융기관의 부채+사채+월부 및 외상), 총자산(저축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액+계불입액+사채준금액+주택보유가액), 순자산(총자산-총부채), 투자자산(주식+채권+뮤추얼펀드+CD), 월평균소비지출(식료품+주거광열+가구집기가사용품+피복신발+보건의료+교육+교양오락+교통통신+기타소비지출), 연간총저축액(월평균저축 12개월)으로 측정하였다.

재무비율 변인은 Lytton, Garman & Poter(1991), DeVaney(1993), 양정선(1997), 최윤지(1998)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항목별로 측정하였다. 즉 소비지출비율, 유동성비율, 부채비율, 자산축적비율로 각각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또한 하위영역으로 총10가지 비율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재무비율의 하위영역별 재무비율과 이를 만족하는 준거기준(guideline)을 살펴보면, 소비지출 비율은 월평균 소비지출/월평균 가처분소득(1.0미만)과 월평균 총주거비지출/월평균 가처분소득(0.30-0.40)으로 측정하였다. 이 비율은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비율로 현재의 소비 지출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유동성비율은 단기 및 장기유동성으로 구성하였는데 단기유동성은 유동자산/연간 가처분소득(0.25 이상), 유동자산/월평균 소비지출(2-6 개월분)이며, 장기유동성은 유동자산/순자산(0.25 초과)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가계의 장·단기유동성을 측정하며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가처분소득의 3-4 개월분과 동일한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하며

자가고용, 불규칙 고용자일 경우 더 많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유동자산/총부채(0.1 초과)는 유동자산으로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총부채/순자산(1.0 미만)은 순자산의 가치에 대한 총부채의 관계로 순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이며, 실물자산/총부채(1.0 초과)는 실물자산으로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산축적비율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투자자산/순자산(0.2 초과)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0.1 초과)은 가계의 저축률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3.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이다. 이 조사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차에 걸쳐 실시된 패널자료이다. 6차 자료의 표본은 조사원년인 1993년도에 다단계층화확률표본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반가계에서 추출된 4547 가계 중 6차 추적에 성공한 총 2,468 가계에서 757 독신가계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독신가구 대상영역은 자신이 가구주로서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미혼이거나 결혼경험이 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으로 현재 홀로 살아가는 자로 한정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재무비율로 측정된 재정상태 분석은 평균, 중앙값을 산출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재정상태분석은 t-test와 ANOVA(Scheffe검정)로 산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 version을 이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독신의 비중은 72%로 남성독신 28%보다 더 많은 비중을 보였다. 독신가구 연령은 60대가 62.1%로 가장 많으며, 50대 17.3%, 40대 11.4%, 30대 이하 9.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군부지역 24.0%, 중소지역 19.0%, 광역시 10.4%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거유형은 자가소유가 69.4%로 전세 18.1%와 월세 및 기타소유의 12.5%보다 과반수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신가구의 직업은 기타인 경우 56.7%로 가장 많으며, 봉급생활자는 14.0%, 비정규직

10.3%, 농림수산업 9.6%, 자영업/자유업 9.4% 순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수입지출 상태를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93만원, 월평균근로소득 110만원, 월평균자산소득 54만원, 월평균 이전소득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가처분소득은 148만원이며, 월평균소비지출 및 저축은 119만원과 2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소비성향은 78.79%로 집계되었다. 자산상태를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금융자산은 678만원, 유동자산 336만원, 투자자산은 136만원, 실물자산은 49,878만원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독신가구의 총부채인 경우 1,363만원, 총자산 51,029만원, 순자산은 49,6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구 분		mean(sd)			
성 별	남	212(28.0)	수 입 지 출 상 태 (만원)	월평균가계소득 근로소득(월) 자산소득(월) 이전소득(월) 월평균가처분소득 월평균소비지출 월평균가계저축 월평균소비성향(%)	192.93(162.15) 110.15(113.28) 54.47(205.78) 28.31(77.94) 147.77(118.78) 118.59(88.14) 29.04(50.72) 78.79(52.31)			
	여	545(72.0)						
연 령	30대이하	70(9.2)						
	40대	86(11.4)						
	50대	131(17.3)						
	60대이상	470(62.1)						
거주지역	서 울	346(45.7)				자 산 상 태 (만원)	금용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 총 부 채 총 자 산 순 자 산	678.41(1665.48) 336.36(803.40) 135.77(1016.93) 49878.41(308858.90) 1363.45(4754.95) 51028.95(318107.34) 49665.50(312743.33)
	광 역 시	79(10.4)						
	중소도시	150(19.8)						
	군부지역	182(24.0)						
주거유형	자 가	525(69.4)						
	전 세	137(18.1)						
	월세 및 기타	95(12.5)						
직 업	봉급생활자	106(14.0)						
	자영업/자유업	71(9.4)						
	농림수산업	73(9.6)						
	비정규직	78(10.3)						
	기 타	429(56.7)						

· 모든 응답수는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직업이 기타인 경우 가사/전업주부, 연로, 미취업, 무급가족종사자, 군복무, 재수생, 학생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의 분석

1)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의 분석

성별에 따라 독신가구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독신가구의 수입지출상태와 자산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재무구조 차이를 살펴보면 수입지출상태에서는 월평균저축 및 소비성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자산부채상태인 경우 총자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수입지출상태를 살펴보면 남자독신의 경우 월평균소득은 174만원, 여자독신은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남녀독신의 주요소득원천은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었으며 남자는 128만원, 여자는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소득은

남자는 16만원, 여성은 69만원으로 나타나 여성독신가구의 자산소득 이용률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월평균 소비지출 및 저축항목인 경우 독신남성이 독신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은 35만원, 여성은 28만원 저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평균 소비성향을 보면 독신여성은 79.58%로 독신남성의 76.72%보다 약간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의 자산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 및 유동자산은 남성의 경우 723만원, 339만원이며, 여성의 경우 661만원, 335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자산인 경우 남성은 97만원과 여성은 151만원이며,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인 경우 남성은 26,115만원과 여성은 59,273만원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독신가구에 있어 자산소득의 이용을 투자자산 및 실물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총부채의 경우 남성은 1,079만원과 여성은 1,475만원이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보유액은 남성은 27,275만원, 여성은 60,420만원이었다. 총자

<표 2> 성별 및 주거유형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 분석

단위: (만원)

		남 자	여 자	t-value	자 가	전 세	월세 및 기타	F-value
		(N=212)	(N=545)		(N=525)	(N=137)		
		mean	mean		mean	mean	mean	
수 입 지 출 상 태 (월평균)	가계소득	174,214	200,022	2.897*	211,053 b	172,406 b	123,789 a	4.232**
	근로소득	128,062	103,159	2.726**	107,016 ab	135,096 b	92,029 a	4.736**
	자산소득	16,211	69,181	-4.685***	72,891 b	16,955 ab	7,614 a	6.935***
	이전소득	29,941	27,682	0.358	31,146	20,355	24,146	1.197
	가처분소득	163,419	141,682	2.266*	153,272 b	152,642 b	110,452 a	5.428**
	소비지출	130,858	113,822	2.395*	123,182 b	118,905 b	92,778 a	4.835**
	가계저축	32,561	27,669	1.191	29,874 ab	33,737 b	17,673 a	3.059*
	소비성향(%)	76.722	79.579	-0.776	78.859	78.356	79,062	0.006
자 산 상 태	금융자산	723,369	660,853	0.462	788,492	473,485	369,284	3.830*
	유동자산	339,270	335,230	0.062	387,801	218,411	222,021	3.523*
	투자자산	97,405	150,697	-0.647	191,771	7,299	11,578	2.609
	실물자산	26114,950	59273,270	-1.807	64062,14	3085,407	43215,580	2.094
	총 부 채	1078,543	1474,847	-1.361	1574,849	1218,272	423,642	2.434
	총 자 산	27274,994	60420,050	-1.934*	65430,204	3784,602	43818,463	2.782
	순 자 산	26196,451	58945,203	-1.693	63855,355	2566,330	43394,821	2.532

*p<.05 **p<.01 ***p<.001
a,b,c (Scheffe test)

산액에서 부채보유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자산보유액은 독신남성이 26,196만원, 독신남성은 58,9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신여성의 소득원천에 있어 주로 자산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외적 경제적 상황이나 실물자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충분한 소득원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소득원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금융 및 유동자산보유는 독신남성이 독신여성보다 높지만 투자 및 실물자산, 총부채, 총자산, 순자산보유는 독신여성이 독신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독신가구의 자산축적과정에서 독신남성은 안전금융자산을 선호하는 한편 여성독신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보아 유동성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즉 이들의 편중된 자산보유는 장기적으로 불 때 효과적인 재무실천을 위해 자산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주거유형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의 분석

주거유형별 독신가구 재무구조의 분석은 <표 2>와 같다. 독신가구의 수입지출상태를 각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이전소득 및 월평균소비성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주거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소득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세독신가구인 경우 172만원이며, 자가독신가구는 211만원, 월세 및 기타독신 가구는 124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소득 원천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전세독신가구가 135만원으로 자가독신가구의 107만원 보다 많았지만 자산 및 이전소득은 자가독신가구가 전세독신가구보다 모두 많았다. 즉 자산소득은 자가독신가구인 경우 73만원, 이전소득은 전세독신가구가 20만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에 있어 자가독신가구가 15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월세 및 기타의 독신가구는 110만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월평균소비지출은 자가독신가구에서 123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는

93만원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가계저축은 전세독신가구가 3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는 18만원으로 가장 낮은 저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월평균소비성향은 자가 및 전세가구인 경우 78.86%, 78.36%이며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는 79.06%로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상태를 각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 및 유동자산에서만 주거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과 총부채에 있어 자가독신가구는 788만원과 1,5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월세 및 기타거주인 경우 369만원과 424만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 및 총자산, 순자산에서 가장 높은 보유를 보이지만 전세에 거주하는 독신가구는 가장 낮은 자산보유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거주에서 유동 및 투자자산은 388만원, 19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세인 가구는 218만원과 7만원으로 가장 낮은 보유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물자산, 총자산 및 순자산에 있어 자가거주인 경우 64,062만원, 65,430만원, 63,855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세거주는 3,085만원, 3,785만원, 2,56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주거유형별 독신가구의 재무구조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소비지출상태인 경우 자가거주인 독신가구는 월평균가계소득, 자산 및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월평균소비지출이 가장 높았으나, 전세가구는 월평균근로소득 및 저축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인 경우 수입지출에 있어 이전소득과 월평균소비성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소비성향은 오히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독신가구의 자가소유여부는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가독신가구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 자산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세독신가구는 금융자산과 총부채 보유에 있어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으나 그 외 자산항목인 경우 오히려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계의 부채여부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소유여부와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즉 저학력자, 비정규직 및 미취업자, 무주택자일수록,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문숙재, 김순미, 양정선, 1996)와 같이 부합되어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신가구의 비자가보유는 재정상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에 대한 비자가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무교육이나 재무설계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

3) 연령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 분석

연령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별 수입지출상태를 보면, 자산소득, 월평균저축 및 소비성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 가운데 가장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월평균저축이었다. 또한 연령별 자산상태를 비교한 경우 금융자산, 투자자산, 총부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입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월평균소득은 50대가 214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는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원천별로 보면 월평균근로소득은 30대 이하에서 137만원으로 가장 높고, 40대는 99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지만, 월평균자산소득인 경우 50대에서 72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이지만, 40대인 경우 5만원으로 가장 적은 소득원을 이루고 있다. 월평균이전소득은 40대 및 50대에서 31만원과 3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30대 이하의 독신가구는 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월평균가처분소득인 경우 50대에서 162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40대는 122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였다. 즉 30대 이하 독신가구는 주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며, 40대 독신가구는 이전소득에서, 50대 독신가구는 자산 및 이전소득에 주로 의존하

<표 3> 연령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 분석

단위: (만원)

	30대이하 (N=70)	40대 (N=86)	50대 (N=131)	60대이상 (N=470)	F-value	
	mean	mean	mean	mean		
수입지출상태 (월평균)	가계소득	169,730	134,806	214,093	200,821	2,019
	근로소득	136,942	99,061	110,566	108,028	1,633
	자산소득	7,400	4,631	71,847	65,493	3,648*
	이전소득	25,388	31,114	31,680	27,300	0,177
	가처분소득	154,828	121,500	162,366	147,469	2,155
	소비지출	116,357	107,883	118,190	120,997	0,555
	가계저축	38,471 b	13,616 a	44,175 b	26,234 ab	8,040***
	소비성향(%)	58,034 a	83,172 b	73,913 ab	82,531 b	5,038**
자산상태	금융자산	757,742 ab	650,117 ab	1165,460 b	541,153 a	4,788**
	유동자산	192,885	478,647	375,410	321,278	1,795
	투자자산	42,857	23,837	377,862	102,617	3,211*
	실물자산	31478,330	62890,170	6807,650	62204,880	1,165
	총부채	726,885	794,081	695,387	1746,858	2,660*
	총자산	32471,814	64042,771	8726,382	63169,928	1,432
	순자산	31744,929	63248,690	8030,995	61423,070	1,530

*p<.05 **p<.01 ***p<.001
a,b,c (Scheffe test)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40대 독신가구의 소득 원천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소득원 배분에 있어 많은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소비지출은 60대 이상에서 121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40대에서는 108만원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저축은 50대에서 44만원으로 가장 높고 반면 40대는 14만원으로 가장 낮은 집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평균소비성향은 40대에서 83.17%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 이하는 58.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산상태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보유는 50대의 독신가구는 1,165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60대의 독신가구는 54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유동자산보유는 40대 독신가구가 479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지만 30대 이하 독신가구에서는 193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자산보유는 50대 독신가구가 378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40대 독신가구는 24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실물자산 및 총부채에 있어 60대 이상의 독신가구가 62,205만원과 1,74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독신가구인 경우 6,808만원과 695만원으로 가장 낮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자산과 순자산을 살펴보면 40대 독신가구는 64,043만원과 63,249만원으로 가장 높은 자산보유를 가지고 있었으나 50대 독신가구는 8,726만원과 8,031만원으로 가장 낮은 자산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연령별 독신가구의 재무구조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 수입지출상태인 경우 30대 이하의 독신가구는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40대 독신가구는 이전소득을 제외한 그 외 소득, 저축, 소비지출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과적인 소비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대의 독신가구는 월평균가계소득, 자산 및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월평균 가계저축에서, 60대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자산상태를 보면 30대 이하의 독신가구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보유는 가장 낮은 상태를 보였으며, 40대 독신가구는 유동자산, 총자산

및 순자산보유가 가장 높았으나 투자자산보유는 가장 낮았다. 50대 독신가구는 금융자산 및 투자자산보유가 가장 높았으나 실물자산, 총부채, 총자산, 순자산보유에서는 가장 낮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독신가구는 실물자산과 총부채보유는 가장 높았으나 금융자산보유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부채보유가계의 비율도 연령이 증가하여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60대 이상의 경우도 45.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성영애, 2003)와 부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60대 독신가구인 경우 부채 및 실물자산 보유가 높은 것으로 보아 효과적인 자산배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직업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 분석

직업에 따른 독신가구의 재무구조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업에 따른 수입지출상태에서는 이전소득과 월평균저축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에 따른 자산상태비교는 금융자산과 유동자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 따른 수입지출상태를 살펴보면 독신가구의 월평균가계소득은 자영업/자유업인 경우 256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68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독신가구의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은 봉급생활자에 종사하는 독신자 경우 16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농림수산업 종사하는 경우 44만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은 기타직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75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농림수산업 종사하는 독신자는 5만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전소득에 있어 자영업/자유업 종사하는 독신자는 3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자는 1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처분소득은 봉급생활자인 독신가구는 173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1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이었다. 월평균소비지출은 봉급생활자인 독신가구가 141만원과 월평균저축은 자영업/자유업

〈표 4〉 직업에 따른 독신가구 재무구조 분석

단위: (만원)

		봉급생활자 (N=106)	자영업/자유업 (N=71)	농림수산업 (N=73)	비정규직 (N=78)	기 타 (N=429)	F-value
		mean	mean	mean	mean	mean	
수입 지출 상태 (월평균)	가계소득	198,641 b	256,035 b	68,291 a	141,268 ab	211,839 ab	6,738***
	근로소득	162,364 d	150,295 cd	43,978 a	100,804 b	103,535 bc	15,721***
	자산소득	12,022	71,544	4,698	30,914	75,068	3,692**
	이전소득	24,255	34,196	19,615	9,55	33,236	1,968
	가처분소득	172,641 b	170,859 b	99,917 a	118,089 a	151,364 ab	6,280***
	소비지출	141,358 c	128,140 c	82,164 a	86,987 ab	123,333bc	8,213***
	가계저축	31,283 ab	42,718 b	17,753 a	31,102 ab	27,766 ab	2,362
	소비성향(%)	64,914	64,434	81,712	73,192	85,129	4,980***
자 산 상 태	금융자산	910,781	715,000	198,788	190,487	783,841	4,164**
	유동자산	422,066 b	382,394 ab	145,000 ab	57,153 a	390,200 ab	4,274**
	투자자산	103,113	26,760	0,000	0,000	209,673	1,474
	실물자산	43524,330	18944,080	50749,150	17844,840	62265,150	0,540
	총 부 채	781,292	1259,323	1288,194	191,039	1761,514	2,322
	총 자 산	44960,290	20068,234	51092,938	18092,480	63648,864	0,557
	순 자 산	44178,998	18808,911	49804,744	17901,441	61887,350	0,634

*p<.05 **p<.01 ***p<.001
a,b,c,d (Scheffe test)

자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43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농림수산업자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월평균저축이 18만원, 월평균소비지출이 82만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월평균소비성향은 기타직업인 독신가구는 85.13%로 가장 높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유업 종사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64.91% 및 64.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 따른 자산상태를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인 독신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911만원, 유동자산이 422만원으로 가장 높은 보유액을 보이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금융자산이 190만원, 유동자산이 57만원으로 가장 낮은 보유액을 지니고 있었다. 투자자산 보유액을 보면 기타직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의 경우 21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농림수산업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직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에 있어 총부채가 1,762만원, 총자

산이 63,649만원과 순자산이 61,887만원으로 각각 가장 높은 반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총부채가 191만원, 총자산이 18,092만원과 순자산이 17,901만원으로 각각 가장 낮은 보유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직업에 따른 재무구조 분석을 종합해 보면 수입지출상태인 경우 봉급생활자인 독신가구의 경우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임과 동시에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유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월평균가계소득, 이전소득, 월평균저축이 가장 높았으며 농림수산업자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모든 소비지출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져 심각한 수입지출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직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자산소득과 월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유형별 자산상태를 살펴본 결과 봉급생활자의 독신가구는 금융자산과 유동자산 보유액이

가장 높았으나 부채보유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이 기타에 속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자산 및 부채보유가 가장 높았으나 비정규직의 독신가구는 자산 및 부채보유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속하는 경우 다수의 노인가구가 포함되어 그동안 자산축적이 이루어져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2. 재무비율을 이용한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재무비율을 이용한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초과지출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월평균가처분소득 대 월평균소비지출의 비율로 독신가구 대상자 가운데 준거기준인 1.0 보다 작은 비율에 포함하는 독신가구는 전체의 56.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가구의 43.7%가 초과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신가구의 효율적인 주거관리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월평균소득 대 월평균총주거의 비율인데 이를 만족시키는 준거기준인 0.30에서 0.40에 포함하는 가구는 전체의 3.5%가 준거기준을 만족시켰다. 즉 독신가구의 96.5%는 비효율적인 주거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는 단기 유동성과 장기 유동

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기 유동성 비율로 연간가처분소득 대 유동자산의 비율을 만족시키는 준거기준인 0.25 초과에 포함되는 가구는 68.46%이었으나 월평균소비지출 대 유동자산의 비율을 만족시키는 준거기준인 3.0 초과에 포함되는 가구는 49.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유동성 비율로 순자산 대 유동자산의 준거기준인 0.25 초과에 포함되는 독신가구는 19.0% 밖에 지나지 않았다. 즉 독신가구는 소득을 이용한 단기 유동성 확보율은 준비하고 있으나 소비지출증가로 인한 단기유동성 확보율은 50.3%로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신가구의 81.0%가 장기유동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은 3개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먼저 독신가구의 재정능력을 만족시켜주는 비율로 총부채 대 유동자산의 준거기준인 0.1 초과에 포함하는 가구는 52.3%로 나타났다. 즉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일부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독신가구는 47.7%로 집계되었다. 순자산 대 총부채는 지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1.0 보다 작아야 지불능력이 있는 가구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무관리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신가구에서는 이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구가 84.9%로 나타났으며, 이는 15.1%의 독신가구는 순자산 보다 보유 부채가 더 많아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가구과산상태를

<표 5> 독신가구의 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		Guideline	전체 (N=755)			
			median	mean	%meeting	
소비지출 비율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	0.95	0.86	56.3	
	월평균총주거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0.30-0.40	0.04	0.08	3.5	
유동성 비율	단기 유동성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0.25	32.52	68.46	86.8
	장기 유동성	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	>3.0	93.04	106.35	49.7
부채비율	유동자산/순자산	>0.25	0.03	0.10	19.0	
	유동자산/총부채	>0.1	0.13	0.49	52.3	
	총부채/순자산	<1.0	0.10	1.14	84.9	
자산축적 비율	실물자산/총부채	>1.0	82.72	124.54	73.4	
	투자자산/순자산	>0.2	0.15	0.18	35.7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	0.19	0.23	72.1	

의미한다. 실물자산을 이용하여 완전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구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시해 주는 지표인 총부채 대 실물자산의 경우는 73.4%의 독신가구가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머지 26.6%의 독신가구는 실물자산을 처분하여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재무구조 내에서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위한 자산 축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먼저 순자산 대 투자자산 비율은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0.2 초과인 독신가구의 경우 자본 축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5.7%의 가구가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산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연간 가처분소득 대 연간총저축액은 연간 가처분소득 중에서 연간 총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간 가처분소득 중에서 0.1 초과인 독신가구의 경우 저축해야 미래를 위한 자본 축적을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72.1%로 나타나 아직까지 자산축적을 투자자산보다 저축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의 재산소유 형태가 안전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사회인구학적 변인, 재무비율 측면에서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독신가구의 재정욕구와 경제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앞으로 독신가구를 위한 경제적 복지서비스 실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수입지출상태에 있어 독신여성이 독신남성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소비지출상태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독신남성이 독신여성보다 금융 및 유동자산보유액은 더 많이 보유하

였으나 투자자산, 실물자산, 총부채 및 총자산, 순자산보유액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배분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주거유형에 따른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수입지출 상태인 경우 자가 및 전세가구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가독신가구인 경우 월평균가계소득, 자산소득, 이전 및 가처분소득, 월평균소비지출이 가장 높았지만 전세독신가구는 근로소득, 월평균저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세 및 기타에 거주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이전소득이며 그리고 이를 제외한 항목의 소비지출상태는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산상태를 보면 자가거주의 독신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자산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금융자산과 총부채의 보유액은 월세 및 기타독신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그 외 자산항목의 보유액은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특히 월세 및 기타거주의 독신가구인 경우 수입지출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전세독신가구는 자산상태에 있어 가장 열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연령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입지출상태인 경우 30대 독신가구는 월평균근로소득, 저축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 독신가구는 이전소득과 월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았으나 그 외 수입지출상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50대 독신가구는 월평균가계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및 월평균저축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60대인 경우 월평균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산보유상태인 경우 30대 독신가구인 경우 유동자산보유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독신가구는 유동자산, 총자산 및 순자산의 보유액은 높았으나 투자자산의 보유액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0대 독신가구는 금융자산과 투자자산 보유는 높았으나 실물자산, 총부채, 총자산 및 순자산은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60대 독신가구는 실물자산과 총부채의 보유액은 가장 높았지만 금융자산 보유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수입지출상태는 50대에 가장 높으나 40

대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의 불균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30대는 소비성향이 높은 반면 50대는 저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소비지출 및 자산축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직업유형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입지출상태의 경우 독신가구가 봉급생활자인 경우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이 가장 높았지만 자산소득의 보유액은 낮았다. 자영업/자유업인 경우 월평균소득 및 이전소득, 월평균저축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인 경우 모든 소비지출항목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은 이전소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경향을 보여주어 심각한 소비지출상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직업이 기타에 속하는 독신가구인 경우 자산소득, 월평균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보유상태를 보면 봉급생활자인 독신가구의 경우 금융 및 유동자산의 보유액은 가장 많았으나 총부채 보유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유업인 독신가구의 경우 실물자산, 총자산 및 순자산의 보유액은 낮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도 금융자산, 유동 및 투자자산의 보유액은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독신가구는 자산보유액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재정상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이 기타에 속하는 독신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의 보유액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가구의 직업이 농림수산업, 비정규직인 경우 수입지출상태가 매우 악화됨을 알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봉급생활자의 독신가구인 경우 부채는 가장 적으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기타직업의 독신가구의 자산상태는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며 비정규직의 직업인 경우 가장 낮은 자산상태를 보여주어 자사배분의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재무비율을 이용한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소비지출비율인 경우 2가지 유형으로 측정한 결과, 월평균가처분소득에서 월평균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독신가구의 43.7%가 초

과지출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독신가구의 96.5%는 비효율적인 주거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가인 경우 월세 및 전세생활을 하고 있어 주거유지비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더불어 소비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유동성비율은 3가지 유형으로 단기 및 장기유동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독신가구는 단기유동성 확보율 보다 장기유동성 확보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유동성 확보율은 2가지 비율로 측정한 결과, 연간가처분소득과 월평균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독신가구의 유동자산 확보율은 연간가처분소득 보다 월평균소비지출에서 유동자산을 이용한 확보율이 훨씬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장기유동성 측정은 순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독신가구의 81.0%로 나타나 장기유동성 확보율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채비율은 3가지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유동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갚을 수 없는 능력이 47.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실물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은 26.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부채가 순자산범위를 초과하여 지불능력이 부족한 독신가구는 16.1%로 나타나 결국 이는 가구파산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동·실물자산을 이용한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동자산 및 장기유동성보유도 낮아 특히 독신가구는 미래를 대비하여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여야만 독신으로서 지속적인 삶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축 및 순자산 증가를 위한 다양한 재무진단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산축적 비율인 경우 2가지 비율로 측정한 결과, 순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5.7%로 나타났다. 즉 독신가구의 64.3%는 투자자산을 이용한 자산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연간 가처분소득 중에서 연간 총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독신가구의 72.1%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였지만 독신가구의 27.9%는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가구의 자산축적은 투자자산 보다 저축을 이용하며 여전히 은행권 및 비은행

권의 안전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별, 주거 및 직업별 소비지출의 비합리성을 엿볼 수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독신가구 가운데 많은 취약점을 가진 저소득, 여성, 노인 및 농림수산업 및 비정규직, 비자가인 경우 독신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1인 여성가구의 경우 경제적 문제의 한 측면으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로 인해 여성근로소득은 남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인 경우 빈곤감소를 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차이와 같은 불평등을 없애야 하며, 연령과 적성,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개발, 소자본 창업 지원 실시 및 훈련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 등 그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 지원정책으로 독신가구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혼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독신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의 부녀자공제는 단독가구의 가사비용 보전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독신가구도 배우자 공제조항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가구에 있어 주거마련의 어려움 들 수 있는데 독신자들은 임대입주 조건이 부적합하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마련도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어 주택마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현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있으나 앞으로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의 배정, 저렴한 국민주택의 보급에 역점을 두어 주거마련을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두번째,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분석을 통해 장기

유동성, 순자산보유의 비중이 낮아 재정적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우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축의 유용성 인식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부채상환능력, 유동성비율을 고려한 자산축적 방법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독신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자산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재무지식의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은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법규 및 대출, 세제상 불이익 등 불리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독신가구는 높은 소비지출과 여전히 실물자산 위주로 소유함은 물론 부채보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상태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독신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이 많은 만큼 욕구수준이 그 만큼 상실됨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실감이 커져 독신노인가구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업알선, 경로연금제도, 노인고용 촉진제도 등 적극적인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통해 소득보장을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가구 스스로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등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유동성 및 환금성위주의 자산축적이 이루어도록 은퇴 이후를 위한 은퇴 전 재무계획 하여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를 사용하였는데 더욱 최근 자료를 이용한다면 최근의 독신가구의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더 잘 반영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재무비율 기준을 독신가구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른 부가적인 후속연구로 독신의 라이프 스타일, 심리적 변인에 따른 복지욕구를 감안한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신가구를 연령층별 세분화하여

접근분석 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고연령층의 독신가구, 여성독신가구, 빈곤가구, 편부모가구의 재정분석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복지프로그램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5.
- 김순미, 홍성희(2000). 가족기업의 가계재정상태와 기업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7).
- 김연정(1998a).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2.
- 대우경제연구소(1999).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 (KHPS) 대우패널 데이터 설명서.
- 문숙재, 김순미, 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박순일, 김태완(2000).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41(6), 보건복지포럼.
- 박정윤, 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7-31.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4(1), 39-57.
-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개발원(2002). 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 여윤정(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정순희,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최윤지(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중년기와 노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지, 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평가. *한국가정학회지*, 16(2), 83-96.
- 황덕순, 김숙향(1999). 승용차 보유가계의 재무상태와 승용차관련비용 및 구매비 영향요인 비교 분석 -할부구매여부에 따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31-45.
- 통계청(1998). 1996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보고서.
- 통계청(200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인구부문), <http://www.nso.go.kr>.
- DeVaney, S. (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CP*, 4, 31-46.
- Garman, E. T.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G. Langrehr (Ed.), *Proceeding,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ors*, 123-131.
- Hefferan, C. (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

- Iwuagwu, V. S. (1989). Financial Ratios and Perceived Household Financial Sec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Lytton, R. H., Garman, E. T.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Mason, J. W. Griffith, R. (1988). New Ratio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Spring, 71-87.
- Porter, N. M. Garman, E. T. (1992). Money as Part of a Measure of Financial Well-be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6), 820-826.
- Prather, C. G. Hanna, S. (1987). Ratio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Household Norms, In M. E. Edmondson K. L. Perch (Eds.)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80-88.
- Prather, C. 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69.
- Winger, B. J., & Frasca, R. R. (1993). *Personal Finance: An Integrated Planning Approach*, 3r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004년 3월 30일 접수, 2004년 10월 27일 채택)